

## 우리 이웃으로 찾아온 선교지

성경 본문	신명기 10:17~19
요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19절).
찬송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매일 스치는 사람들
이과의 목표	난민이나 타국 유학생과 같은 선교의 대상이 우리 이웃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 본다.



## I. 생각하기

1. 자신이 타문화권에 있을 때 도움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어 봅시다.
2.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그네를 잘 보살피고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II. 생각 넓히기

## 1. 선교지가 바로 걸 건너에

제1차 로잔대회 (1974)에서 랄프 윈터 (Ralph Winter)는 효과적인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 E-원리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E는 복음전도를 뜻하는 Evangelism이며, 전도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장애물의 숫자에 따라서



E-1, 2, 3로 구분을 했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 E-1이고, 여기에 더해서 언어의 장벽을 포함하면 E-2, 그리고 문화의 차이까지 넘어야 하면 E-3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바다를 건너가서, 타문화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E-2와 E-3의 사역을 일반적으로 (해외)선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건너서가 아니라 바로 길을 건너서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사역해야 하는 대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난민과 유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유엔난민기구 (UNHC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sup>1</sup>, 2022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고향을 떠나게 되어 1억 1천만 명에 가까운 이주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난민이 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혹은 여러 형태의 폭력이나 종교 및 인종적 박해를 피해 어쩔 수 없이 고향과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난민입니다. 미국에서는 정권에 따라서 매년 입국을 허용하는 난민 인원의 총 숫자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29,000명의 난민이 미국에 정착을 했으며, 이 수치는 전 해에 비해 두 배나 증가한 것입니다.<sup>2</sup> 지역으로 보면 뉴욕, LA, 시카고, 휴스턴, 마이애미와 같은 대도시가 난민들의 주된 정착지이며, 최근에는 소도시에서도 난민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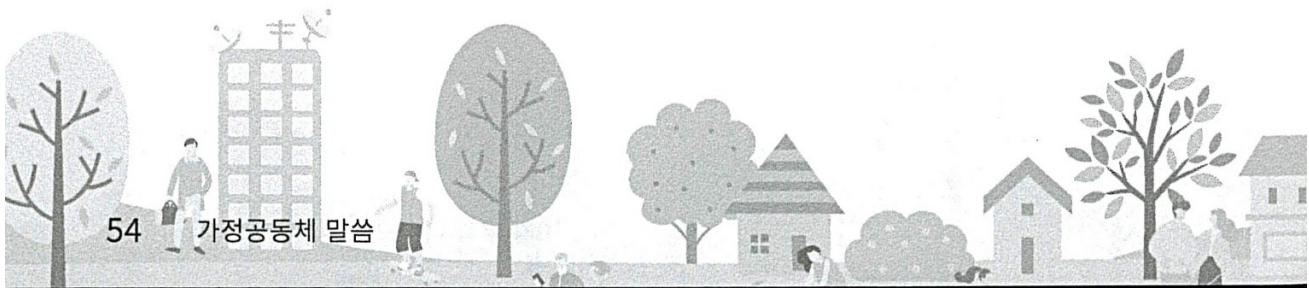
## 2. 나그네를 위한 하나님의 당부

이러한 난민과 유학생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sup>3</sup> 이방인의 신분으로 타지에 와서 이곳저곳으로 거처를 옮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1. <https://www.unhcr.org/us/>: 12/07/2023 접속.

2. <https://www.unrefugees.org/refugee-facts/usa/>: 12/07/2023 접속.

3. 성경에서 나그네는 거류민, 타국인, 외국인 등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매우 취약한 형편에 놓여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 10:19)라고 명하십니다.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명령이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주어졌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출 22:21). 이러한 일반적인 명령 외에, 나그네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실천적 명령들도 있습니다.

-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 19:10).
-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레 19:33).
-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 23:22).

이러한 구절들에는 거류민, 즉 나그네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과 배려가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나누며 베풀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궁핍한 처지에 있는 이들의 자존심까지 고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이 개인적 차원의 기부와 나눔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보살핌의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개인이 남겨둔 포도나 곡식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나그네를 돌보고 섬기는 일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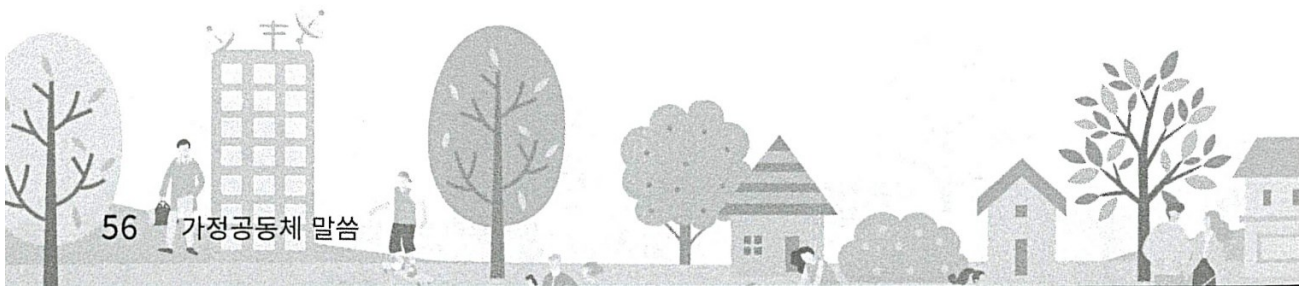


### 3. 사례를 통해 배우기

여러 기관과 교회와 개인들이 이러한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구체적인 사역을 통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은 당장의 정착과 생활에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과 더불어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는 ‘양손사역’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손사역은 한 손으로는 말씀을 주시고, 다른 손으로는 떡을 주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 모두를 채워주는 사역입니다. 아래에 양손사역의 좋은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 **보아스 프로젝트 (The Boaz Project)**

2008년부터 시라큐스 한인교회가 해오고 있는 이 사역은 난민들을 도와서 잘 정착하도록 하고,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룻의 처지를 배려해서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마음껏 줌도록 하고, 나아가 더 풍족하게 얻도록 해 주었던 보아스가 이 사역의 모델입니다. 시라큐스 한인 교회는 미국에 이민자로 먼저 왔던 자신들이 난민들의 처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교회는 아무리 생활의 형편이 나아져도 예수님이 없이는 그 어느 곳도 난민들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교회는 전산실을 만들어서 컴퓨터 수업을 시작했고, 수업 전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수업 내용에도 성경적인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후에는 영어 수업반도 개설을 했고, 학기마다 옷 바자회도 열었는데, 노회에 속한 여러 교회들이 동참해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 교회를 통해 난민을 섬기는 연합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10년부터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매년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 캠프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변 교회도 함께 하는 사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 **프리즘 (PRISM Ministry)<sup>4</sup>**

프리즘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입니다. 큰 규모의 여러 대학들이 있는 지역의 특징을 바탕으로 시작한 이 사역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된 사역에는 한 달에 두 번 갖는 오픈 하우스, 명절을 맞이해서 유학생과 미국 가정을 연결해 주는 일, 관광지 여행, 가구 및 옷 바자회, 캠퍼스에서 함께 하는 점심 등이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 영어 공부의 기회도 제공해 주고, 개인적인 친구를 만드는 것, 멘토를 만나는 것 등에도 도움을 줍니다. 일대일로 혹은 여러명이 함께 하는 성경공부와, 격주 금요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유학생들의 더 깊은 영적인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 **이웃으로 가는 단기선교**

단기선교를 해외로 가는 대신에, 국내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뉴욕 수정교회는 2015년부터 오하이오주 데이튼에 가서 그곳에 있는 난민들을 섬기는 단기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튼에서는 이미 그 지역 평신도인 팸 (Pam)과 개리 (Gary)라는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해 오고 있었으며, 수정교회가 그들의 사역을 후원하고 동참하면서 동역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 선교팀도 함께 사역하는 연합 선교의 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 **연합 성경학교**

난민을 섬기는 사역이 크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도시에서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켄터키주에 위치한 렉싱턴 한인연합 장로교회는 이웃에 네팔이나 콩고 등지에서 온 난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할 장소가 필요했던

4.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https://prismpgh.org/> 을 방문하세요.



그들에게 소정의 사용료만 받고 장소를 대여해 주고 있으며, 교사와 자료가 부족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VBS)에 네팔과 콩고 아이들도 초대해서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을 동원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을 태워오고, 식사나 간식 같은 것들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이웃인 난민들을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몇 사람의 헌신만 있다면 작은 교회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아이들이 부모들을 초대해서 자신들의 교회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곳에 있는 현지인의 교회 성장에 도움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작은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 III. 생각살기

1. 난민과 외국 유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우리 소그룹이 주변에 있는 난민과 외국 유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양손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